

# 스포츠 이슈와 집단 감정의 감정 동학에 대한 시계열 분석 : 수영선수 박태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길<sup>1</sup>, 이공주<sup>2</sup>, 양재식<sup>3\*</sup>

<sup>1</sup>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sup>2</sup>충남대학교 전과정보통통신공학과 교수, <sup>3</sup>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 A Time-Series Analysis for Emotional Dynamics of Sport Issue and Group Emotion : Focusing on Korean Swimming Player Tae-Hwan Park

Jong-Kil Lee<sup>1</sup>, Kong-Joo Lee<sup>2</sup>, Jae-Sik Yang<sup>3\*</sup>

<sup>1</sup>Professor, Dep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sup>2</sup>Professor, Dept. of Radio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

<sup>3</sup>Researcher, Institution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

요 약 본 연구는 스포츠 이슈에 따른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의 생성과 전개에 대한 감정 동학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수영선수 박태환의 금지 약물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전개 과정을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단순화 한 후, 각각의 신문기사와 댓글을 시계열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이슈와 스포츠 감정 간에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었다. 둘째, 스포츠 감정은 사회적 과정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사회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스포츠 이슈에 따른 스포츠 감정, 집단 행위, 사회적 변화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스포츠 감정 동학의 기제는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 감정 동학의 기제를 시계열 분석이라는 실증적 접근을 통해 검증하였으나, 추후 보다 계량적인 통계 기법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스포츠 감정, 집단 감정, 감정 동학, 시계열분석, 스포츠 이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motional dynamics among sport issues, social structure changes and collective behaviors with time-series analysis. For the purpose, the doping scandal of Tae-Hwan Park was chosen and simplified into 10 episodes. And replies and articles on them were analysed by time-series analysis. As the conclusions, first, there was a clea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port issue and sport emotion. Second, sport emotion was a social being which interacting with social process. Third, the sport emotional dynamics was confirmed. With this study, the sport emotion dynamics was empirically verified, but more statistical approaches would be needed for stronger evidences.

**Key Words** : Sport emotion, Collective emotion, Emotional dynamics, Time-series analysis, Sport issu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2A03926821)

\*Corresponding Author : Jae-Sik Yang(4774495@hanmail.net)

Received June 29, 2018

Revised July 31,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 1. 서론

감정은 합리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간행위와 사회현상의 시발점이 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사회학의 주류적 관점에서 사람의 감정은 이성 vs 감정, 합리성 vs 비합리성, 문화 vs 자연 등의 이분법적 패러다임 속에서 항상 합리성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을 잃어버렸다[1].

이러한 감정의 사회학적 존재 상실은 ‘감정 중립성’을 주장한 파슨스로부터 시작되었다[2]. 그리고 이들에게 감정이란 사회적이기 보다는 지극히 생리적이고 개인적 차원의 존재이거나 매우 적은 소수의 개인 간의 단편적 교류로 인식되는 개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왔다[1].

그러나 감정에 대한 사회학적 무관심은 일련의 감정 사회학을 주창하는 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시적 감정사회학으로 불리는 이와 같은 최근의 감정사회학 학자들은 감정을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한 맥락적 반응의 형태, 행위를 매개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사회규범에 의해 조정되는 사회적 역할, 집단적 표현이 가능한 집합적 속성으로 규정하며[1-4] 사회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집합적 속성을 지닌 감정인 집단 감정은 사회적 관계와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감정사회학의 관점에서 감정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감정이며, 사회적 연대의 근원이자 집단 동원의 에너지가 된다[5].

감정은 인간의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생리적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지닌다[1]. 또한 사회 구조에 의해 구속되거나 거시적 사회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사회성과 역사성을 지닌다[1]. 동시에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지 않는 비결정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1]. 감정이 이처럼 사회성과 역사성, 연속성과 더불어 비결정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감정이 외부자극을 수용하는 사람의 주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1].

이렇듯 외부의 자극을 통해 감정이 발생하고 이 감정이 또 다른 자극이 되어 감정의 방향과 양태를 바꾸는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기제를 감정 동학이라고 한다[1].

감정 동학의 기제는 감정 형성의 맥락을 넘어 감정이 어떠한 행위를 유발하고 그것이 거시 구조 및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감정 동학

의 관점에서 감정은 외부자극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적 존재이지만 이를 넘어 사회 구조와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며 또한 이러한 행위와 변화는 새로운 감정을 형성하는 역동적 사회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 동학의 기제는 스포츠의 국면에서 더욱 강렬하게 나타난다. 특히, 스포츠가 가지는 합법적인 원초적 감정 표현의 장이라는 특성[6]과 민족주의적 정서에 따른 동질감에서 발현되는 스포츠 감정의 집단적 속성은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이 보다 강렬하게 발현되는 이유가 된다[7-9]. 그리고 이와 같은 강렬한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은 이를 자극하는 스포츠 이슈, 이에 동반되는 집단 행위, 이에 야기되는 사회적 구조 변화로 구성되는 감정 동학의 기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스포츠 팬덤의 문화개혁 가능성에 관한 연구[10]는 구단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가진 팬클럽이 구단의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통해 스포츠 문화개혁에 이르는 사회적 구조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구단의 부적절한 행태는 팬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구단의 변화를 요구하는 팬클럽들의 집단 행위가 촉발되었다.

결국 구단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아가 스포츠 문화개혁이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집단 행위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팬들의 정서적 감수성에 기초한 집단 감정이며 이 감정은 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연대와 집합적 투쟁의 근원이 된 것이다[11].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감정 동학의 기제는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의 관점에서 다음 Fig.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은 스포츠 이슈, 집단 행위, 사회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맥락적 과정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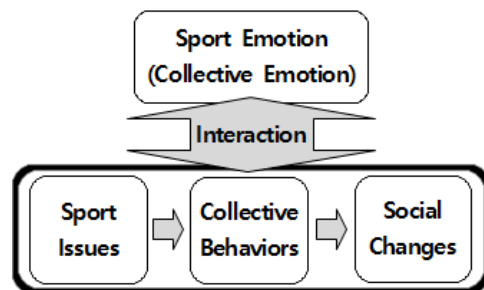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model of sport emotion dynamics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감정 동학의 기제에 대한 검증은 스포츠와 사회현상 간에 존재하는 불가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학문적 토대이자 스포츠 현상의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예측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의 금지약물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스포츠 이슈에 따른 집단 감정의 생성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스포츠 감정 동학의 기제 속에 나타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신문기사와 그 댓글로부터 각각의 연관 단어를 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사건의 흐름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 변화에 따른 스포츠 감정의 유형과 점수를 추출하여 시계열 분석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스포츠 감정 동학의 기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슈에 따른 스포츠 집단 감정의 생성과 집단 행위, 사회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스포츠 감정 동학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 관련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내 주요 포털 서비스인 Daum과 Naver에 게재된 해당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와 댓글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Daum에서 총 113건, Naver에서 총 36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2015년 1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이어지는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 사건에 대한 선행연구[12]를 토대로 연구진 3인과 사회학 및 언론 분야 전문가 각 1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1차 조사대상 신문 기사를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스포츠 이슈의 변화 국면에 따라 전체 사건 전개의 과정을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관한 기사 중, 가장 댓글이 많은 기사와 그 댓글을 스포츠 감정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13]하였다. 각 에피소드 별 최종 조사 대상 기사와 그 댓글 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bjective Articles

No.	Episode	Article	Date	No. of reply
1	Doping reported	The prosecution confirms Park's doping of testosterone	27.Jan. 2015.	410
2	No intention by the prosecution	Taking off suspicion, Park 'didn't know', how FINA will judge?	06.Feb. 2015.	969
3	18-month ban by FINA	Park, 18-month ban by FINA and lose his Incheon Asian Games Medals	24.Mar. 2015.	216
4	Statement of KOC	KOC mentioned regulation can be changed by support of public opinion	24.Mar. 2015.	226
5	Excluded from national team	Park excluded from Summer Olympics Korea national team player list	11.May. 2016.	1,065
6	Entering a suit in CAS	1 Month ago, Park already entering a suit in CAS for his exclusion	14.May. 2016.	802
7	Injunction granted by the court	Park almost on Rio, the court granted his injunction for stop exclusion	01.Jul. 2016.	1,670
8	Statement of KOC	KOC will follow The court and CAS with Park's Olympics	05.Jul. 2016.	1,571
9	Fake of KOC	KOC send fake claim to CAS	06.Jul. 2016.	670
10	Included in national team	Park goes to Rio, CAS granted his qualification	08.Jul. 2016.	1,226

### 2.2 자료 수집 및 분석

우선 시계열 분석을 위한 스포츠 이슈의 흐름과 주된 행위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1월에서 2016년 7월 사이의 Daum과 Naver 상의 모든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박태환 + 약물'의 키워드와 연관된 스포츠 이슈 연관 단어를 Python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하고 빈도분석 하였다. 그리고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전체 기사의 댓글에서 Python을 활용하여 중복 출현 단어를 텍스트 마이닝 한 후, 내용 분석을 통해 스포츠 감정 연관 단어를 선별하고 이를 빈도분석 하였다.

또한 스포츠 이슈에 따른 집단 감정과 집단 행위, 사회 구조 변화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각 에피소드 별 조회 수 기준 상위 100개의 댓글을 선별하였다. 해당 댓글에 투영된 스포츠 감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 댓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된 스포츠 감정을 박태환 및 대한체육회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응원·지지 vs 비난·비판의 두 가지 형태로 유목화 하여 그 에피소드 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피소드의 진행과 그에 따른 스포츠 감정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Excel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 3. 결과 및 논의

#### 3.1 연관 단어 출현 빈도 분석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인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사건의 연관 단어 출현 빈도 분석 결과는 Table 2, Fig. 2와 같다.

Table 2. Word appearance frequency in portal news

Word	Frequency(%)
Parktaehwan	1,592 (6.88)
bannedsubstance	719 (3.11)
doctor	578 (2.50)
punishment	499 (2.16)
FINA	206 (0.89)
participation	201 (0.87)
KOC	173 (0.75)
Olympics	170 (0.73)
reseponse	161 (0.70)
hearing	151 (0.65)



Fig. 2. Word cloud of portal news

스포츠 이슈 연관 단어 중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태환의 이름으로 총 1,592회 등장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 역시, 사건의 핵심을 표현하는 금지약물로서 719회의 출현 빈도를 보였다. 그 외의 출현 단어로는 의사(578), 징계(499), 국제수영연맹(206), 출전(201) 대한체육회(173) 등의 순이었다.

이상의 신문기사 상의 연관 단어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스포츠 이슈 연관 단어는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 사실과 그에 대한 징계의 여부 및 정도 등,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실 중심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피소드 별 핵심 기사에 달린 댓글의 스포츠 감정 연관 단어의 출현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 Fig. 3와 같다.

Table 3. Word appearance frequency in reply

Word	Frequency(%)
Parktaehwan	2,307 (3.12)
bannedsubstance	1,421 (1.92)
KOC	1,298 (1.75)
Olympics	941 (1.27)
Korea	597 (0.81)
medal	526 (0.71)
regulation	518 (0.70)
people	391 (0.53)
person	384 (0.52)
nation	359 (0.49)



Fig. 3. Word cloud of reply

대부분의 언어가 감정을 표현할 때, 하나의 직접적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복수의 단어를 묶어 하나 이상의 구나 문장으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특성[14]으로 인해 댓글 속에서 직접적인 감정 표현 단어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웠다.

댓글의 스포츠 감정 연관 단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박태환으로 총 2,307회 등장하였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단어는 금지약물(1,421)이었으며, 대한체육회(1,298), 올림픽(941) 등의 순이었다.

스포츠 이슈 연관 단어와 댓글의 감정 연관 단어는 스포츠 이슈의 핵심이 되는 1~2위의 단어 이외의 상대적 하위권의 단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신문기사의 연관 단어가 올림픽 참가 가능 여부, 대중의 반응, 청문회 등에 관련된 징계, 세계수영연맹, 출전, 대한체육회, 올림픽, 대응, 청문회 등의 단어로 구성된 것과 달리 스포츠 감정 연관 단어는 대한민국, 메달, 국민, 국가 등으로 사건의 사실보다는 그 사건의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일반 대중의 심정이나 박태환 개인의 인간적인 측면 등에 관련된 표현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댓글이 ‘연습만 하는 착한 사람’ 등의 지지하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등과 같이 실망과 분노를 표

현하는 경우, ‘수영연맹이 \* 먹고 있는 거야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등의 외부 단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점을 살펴보면 댓글의 감정 표현은 대체로 개인의 자격, 인격 혹은 관련 단체 등의 책임과 관련된 지지나 응원, 분노, 비난 등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관 단어 출현 빈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스포츠 이슈 연관 단어와 스포츠 감정 연관 단어는 각각 사실 설명 중심 단어와 감정 표현 중심 단어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감정 연관 단어는 이슈 연관 단어로 부터 발생하는 감정 표현 문장을 구성하였다. 이는 스포츠 감정의 발현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인지와 그에 따른 정서 반응으로 인한 것임[15]을 고려할 때, 사실을 전달하는 스포츠 이슈의 연관 단어와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의 연관 단어의 출현 양상의 차이와 관계는 스포츠 이슈와 스포츠 감정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3.2 스포츠 이슈와 스포츠 감정 시계열 분석

수영선수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과 관련된 일련의 스포츠 이슈와 그에 따른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의 시계열 분석 결과는 Table 4, Fig. 4와 같다.

에피소드 1의 상황은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약 혐의가 예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보도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지배적인 스포츠 감정은 박태환의 지지로 총 100개의 댓글 중 52회의 지지가 나타났다. 반면, 대한체육회의 경우는 해당 상황에서 11회의 비난 감정이 나타났으며, 관련 의사에게도 총 25회의 비난 감정이 나타났다.

해당 에피소드의 댓글에 ‘박태환 물이 또 시작됐네 이나라는 자기선수 못잡아 먹어서 안달~~’ 등의 내용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이전의 박태환과 대한체육회의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스포츠 감정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일차원적인 것이라기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한 맥

Table 4. Result of time-series analysis

Emotion	Ep. 1	Ep. 2	Ep. 3	Ep. 4	Ep. 5	Ep. 6	Ep. 7	Ep. 8	Ep. 9	Ep. 10
Supporting Park	52	13	18		14	6	14	12	12	44
Blaming Park		71	25	15	11	63	34	13		
Supporting KOC					9	3				
Blaming KOC	11	8	5	47	30	4	7	66	81	58
Supporting others		Doc 2	Reg. 13	Reg. 27						
Blaming others	Doc 25	Prosecution 5				Reporter 3				
		Doc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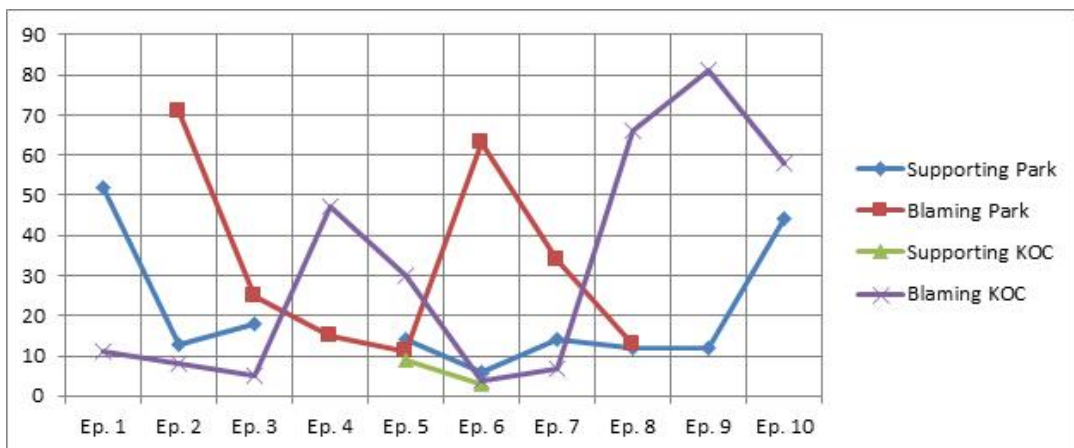


Fig. 4. Result of time-series analysis

략적 반응의 형태[3]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피소드 2의 상황은 검찰에 의해서 박태환의 금지약물 투여가 고의성이 없음이 밝혀진 상황이다.

이 시기의 지배적인 스포츠 감정은 박태환에 대한 실망과 그로 인한 비난의 형태로 나타난다. 박태환에 대한 비난의 스포츠 감정은 그 빈도가 71회로 매우 높았으며, 지지의 감정은 13회로 에피소드 1의 상황에 비해 현격하게 낮아졌다. 동시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 역시 2회로 감소하였으며, 검찰의 판단에 대한 비난(5회)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댓글이 ‘그냥 솔직해지자. 잘못했다고.. 점점 실망감만 커진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때, 박태환에 대한 비난의 스포츠 감정은 박태환이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회피하고자 한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12]. 즉, 모르고 한 금지약물 투여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 보다는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여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반향인 것이다.

사실 관계보다는 도덕성에 근거하여 생성되는 이러한 스포츠 감정의 형태는 사회규범에 의해 조정되는 사회적 역할[4]로 일컬어지는 집단 감정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에피소드 3의 시기는 세계수영연맹의 징계가 18개월 자격 정지와 인천 아시안 게임 메달 박탈로 확정된 상황이다. 이 시기의 스포츠 감정은 박태환에 대한 비난의 현격한 감소로 표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감정의 감소는 상대적일 뿐, 25회에 달하는 비난의 표현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스포츠 감정의 빈도가 61회로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단지 실망에 따른 관심의 소진으로 판단된다.

에피소드 4의 시기는 에피소드 3과 같은 날짜이나 전혀 다른 내용이 발표된 상황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대한체육회는 여론의 항방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 자격제한 규정을 바꿔서라도 박태환을 올림픽 대표로 선발 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에피소드 3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댓글의 수는 226개로 매우 감소하였으며, 대한체육회는 이 발표로 인해 규정을 어긴다는 이유로 47회에 달하는 비난을 받았다.

에피소드 5에서는 박태환이 금지약물 투여 사건으로 인해 대표팀 엔트리에서 탈락했음이 밝혀졌다. 이 시기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이 이전 시기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지의 스

포츠 감정이 나타났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여론에 따라 대표 선발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알린 후 불과 2주 만에 박태환의 대표 탈락을 발표한 것은 규정의 예외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급격히 늘어난 비난 여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이 여론의 형성이라는 집단 행위를 통해 사회적 구조를 바꿀 수 있음[16]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피소드 6은 박태환이 CAS에 중재를 신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박태환에 대한 스포츠 감정은 비난이 63회에 이를 정도로 높게 올라간다. 지난 에피소드 4와 5에 비교할 때 스포츠 이슈의 내용 변화에 따라 주된 스포츠 감정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한 점은 스포츠 이슈가 스포츠 감정의 형태를 결정하는 명확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15,16].

에피소드 8의 시기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의 스포츠 감정이 66회로 현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박태환에 대한 비난은 13회로 낮아졌다. 이러한 스포츠 감정의 격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대한체육회가 자체의 이중적인 규제로 박태환의 대표선수 선발을 막았다가 법원에 의해 이를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피소드 9의 상황에서는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대표 선발을 막기 위해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이전에 CAS의 판단이 나오지 못하도록 대한체육회가 재판소 측에 거짓 의견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며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의 스포츠 감정이 81회에 이를 정도로 폭주한다.

이 시기의 스포츠 감정은 ‘꼬리 찢르지 말고 대가리 씹은 원흉이 짚어야 한다’ 등의 댓글에 나타나듯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강력한 불만과 분노의 감정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에피소드 10에서는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CAS에 의해 내부규정도 불구하고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발탁할 수밖에 없게 된 시기로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이 그 빈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58회 정도의 높은 비난의 감정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박태환에게는 44회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지지의 감정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변화는 CAS의 판결 결과의 영향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대한체육회가 CAS 등이 판결과 관계없이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주장한 전력에

비교하면, 스포츠 감정에 의해 생성되고 표출된 집단 행위로서의 비난 여론 형성 역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7,18].

이상의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사건의 에피소드별 전개와 그에 따른 집단 감정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스포츠 이슈의 변화 과정에 따라 집단 감정 역시 그 이슈에 상응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므로, 스포츠 이슈의 변화와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의 생성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스포츠 이슈의 내용과 그 흐름의 변화는 명확한 스포츠 감정의 내용 변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은 스포츠 이슈에 의해 생성된다[17]는 인과관계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스포츠 이슈의 내용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집단 감정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 이슈의 내용 뿐 아니라 해당 이슈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가 스포츠 감정의 유형을 결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스포츠 감정은 집단 감정으로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존재[3]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스포츠 감정에 의해 생성된 여론은 대한체육회의 대응 전략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전략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감정과 그에 따른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여론의 형성이라는 집단 행위는 스포츠 감정의 산물이자 사회적 변화의 동력이 됨[1,18]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 이슈에 따른 집단 감정으로서의 스포츠 감정의 생성과 전개에 대한 감정 동학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영선수 박태환의 금지 약물 관련 기사와 그 댓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스포츠 이슈의 전체 전개 과정을 총 10개의 에피소드로 단순화 한 후, 각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신문 기사 총 10 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신문기사를부터 각각 조회 수 기준 상위 100개의 댓글을 수집하고 내용분석을 통하여 해당 댓글의 스포츠 감정을 추출하고 유목화 하였으며, 이를 감정 동학 기제의 규명을 위한 시계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스포츠 감정의 생성과 변화는 스포츠 이슈의 내용과 전개에 따라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이슈와 스포츠 감정 간에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규명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스포츠 감정의 유형은 직접적인 스포츠 이슈 뿐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스포츠 감정은 사회적 과정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사회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스포츠 감정은 여론 형성이라는 집단 행위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이슈에 따른 스포츠 감정, 집단 행위, 사회적 변화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스포츠 감정 동학의 기제는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 감정 동학의 기제를 스포츠 감정의 계량화를 통해 시계열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접근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추후 다층모형분석 등의 보다 계량적인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H. S. Park & S. N. Jung. (2009). Toward the Macro-sociology of Emotions. *Society and Theory*, 15(2), 195-234.
- [2] J. Barbalet. (2008). *Weber, Passion and Profi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 T. D. Kemper. (1978).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s*. New York Wily.
- [4] J. R. Averill. (1980). *A Constructionist view of Emotion*, in R. Plutchik and H. Kellerman, eds, *Theories of Emo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5] R. Collins. (2004). *Interaction Ritual Chain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6] E. Cashmore & J. Y. Jeong. (2010). *Making sense of sports*. Paju : Hanul.
- [7] E. Noverst & M. A. Park. (1999). *The process of civilization*. Seoul : Hangilsa.
- [8] C. T. Son & H. S. Youn. (2011). Investigation into Positive Functions of Sports Nationalism Compatible

with Globaliz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3), 37-44.

- [9] E. K. Yang. (2012). The Transnational Movement of Athletes and the Formation of Flexible National Identity: Discourse Analysis on 'Ji-Sung Park as National Competitive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4), 80-104.
- [10] B. N. Lee. (2002).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 Cultural Reform by Sports Fandom : Focused on a Professional Baseball Team's Fan Club and supporter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1] L. Grossberg. (1992). "is there a fan in the house?," in Lewis L, ed, *The adoring audiences: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New York : Routledge.
- [12] W. M. Lee & H. J. Chung. (2017). The Public Emotions: Doping of Illegal Drugs by the Olympic Swimming Star Park Tae Hwan.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Sport*, 30(2), 67-81.
- [13] E. Y. Kim & E. J. Ko. (2018). Monitoring Mood Trends of Twitter Users using Multi-modal Analysis method of Texts and Imag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419-431.
- [14] M. H. Han. (2006).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Russian Idioms - Focusing on the Idioms Emotional Expressions. *Korean Journal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18(1), 87-120.
- [15] J. H. Hwang. (2013). A Cognitive Approach to the Emotion in Sport. *Philosophy of Movement*, 21(3), 43-56.
- [16] J. S. Kim. (2013). The Out-Pouring Way of Emotion in Korean Sport Field.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Sport*, 26(4), 79-94.
- [17] S. W. Im & K. M. Lee. (2003). The Effects of Professional Baseball Gam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Teams on Regional Emotion.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Sport*, 16(1), 73-92.
- [18] O. S. Kwon. (2015). Recasting Doping: Looking in Tae-Hwan Park Doping Scandal. *Sport Science*, 131, 2-11.

이 중 길(Lee, Jong Kil)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체육학사)
-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와 사회문제  
 ▪ E-Mail : jklee@cnu.ac.kr

이 공 주(Lee, Kong Joo) [정회원]



- 1994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석사)
- 1998년 2월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박사)
- 2005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자연언어처리, 기계번역, 정보검색, 정보추출
- E-Mail : kjoolee@cnu.ac.kr

양 재 식(Yang, Jae Sik)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이학석사)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전통무예 전승·보급
- E-Mail : 4774495@hanmail.net